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2004년 성장 프로젝트

정부투자기관에 연꽃을 심어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아심에 찬 '활동마당 넓히기'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실행활동의 불모지인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불자회 '연꽃'을 심고, 기존의 단위 기관 불자회 활동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중심 불자회'를 선정,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할 방침이다.

출범 4년차를 맞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심, 이하 공불련) 중앙사무국은 3월 9일 감사원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2004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3월 27-28일 열린 '제2회 전국 총무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공불련 중앙사무국이 기획한 사업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내실'을 한꺼번에 잡겠다는 점. 공불련이 그간 주력해온 전국 단위기관 불자회 창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향후 성장 동력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불자회 만들기에서 찾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특히 공불련이 정부투자기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들 기관의 상위 부처가 현재 불자회 활동 중인 정부·지자체 업무와 긴밀히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유사업무기관별 멤버십 구축 단위기관 6개권역으로 묶어 포교네트워크·실행공동체 형성

공불련은 이를 위해 '유사업무 기관별 멤버십 구축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중앙 정부부처 불자회가 관련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불자회 결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령 건설교통부 불자회가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에 불자회를 창립하는데 앞장선다는 방식이다. 정부투자기관 불자회 현황 조사도 이미 끝났다. 정부투자기관 80여 곳 중, 불자회가 운영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 경산조폐장 등 10여 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전국 230여 단위기관 불자회 활동도 강화된다. 공불련 산하 지회가 서울·경기권을 비롯,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강원권 등 6개 권역별로 묶여진다. 이른바 '지역 실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공불련은 이 방안의 모델로, 대전·경남·경북에서 활동 중인 지역공무원불자연합회를 꼽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연합회가 중심이 돼 일선 현장의 포교노하우를 교환하고, 실행공동체를 일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불련은 이밖에 불자회별 지역 사정과 대규모 인원 참석 등을 고려해 10월 9-10일 순천 송파사 또는 구례 화엄사에서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키로 하고,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회원 수첩제작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은 "공불련은 그동안 광범한 양적 성장세를 보여 왔다. 이제부터는 성장의 양과 질을 면밀히 따지면서 향후 발전 방향의 밑그림을 그려겠다"며 "올해는 그간 소홀했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불자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고속철도 무사고 운행을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철불협 회원들이 차내에서 '안전운행 발원문'을 읽고 있다.

고속철은 '법의 바퀴'로 달린다

철불협, 시속 300km 달리며 개통축하 안전기원 법회

조계사서도 500여 회원 무사고 기원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전운행입니다. 우리의 불심을 담아 고속철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3월 6일 16시 55분, 용산역을 떠난 고속철도. 객차스피커에서 음성과 목탁 소리가 흘러나왔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박성식 운영위원장의 발원문 낭독.

오는 4월 1일, '땅을 나는 열차' 고속철도의 개통 축하와 무사고 기원을 담은 '열차 법회'가 열렸다. 철불협 지도법사 화암 스님은 경기도 사나사에서 한결음으로 달려왔고, 부산·대전·안산·익산·영주 등 전국 21곳 산하단체 500여 회원들은 새벽부터 상경 길을 서둘렀다.

"오늘은 2천여 철도불자들이 고속철의 호법신장이 되겠다고 부처님께 다짐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그마한 불심을 모아 고속철의 무사고 운행을 간절히 바라는 법석이기도 합니다." 부산철도차량정비창 불자회 송영근(40·수홍) 불자의 법회참석 소감이다.

광명역을 지나 터널구간이 끝나자 신선(漸)에 들어선 열차는 본격적으로 속력을 냈다. 느닷없는 100년만의 폭설로 순간 최고속도는 240km. 하지만 장박 풍정으로 가능해낸 속도는 가히 '고속 법률'이었다. 날리는 눈발이 수평으로 누웠고, 국도를 달리는 차들도 빠르게 '후진'을 했다.

"목적지까지 열차는 안전하게 달릴 겁니다. 서울과 부산이 처음과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양, 신의주, 중국, 러시아 등 대륙으로 뻗어갑니다. 고속철이 '철의 실크로드'를 만들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철도불심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고속철도 광명역장 이채권(53·심광) 철불협 지도위원이 이렇게 말했다.



'철도불심의 쾌속 질주' 철불협 임원단이 서울-대전 구간 시승식 고속철도 객차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55분 남짓, 열차가 대전역에서 당도했다. '300km 바람막이 특급', 철도불자의 희망이 현실로 확인됐다. 이미 국민생활의 혁명을 일으킨 고속철도불심. 그 출발점에서 그들의 불심은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철불협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구로승무소 불교법우회 등 전국 21곳 회원 단체 및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재경지역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철도 개통 무사고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은 축하법어를 통해 "꿈의 고속철도는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희망"이라며 "우리 땅에 이제 '새로운 빛깔'이 생길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달려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법문했다.

이어 철불협 조진구 의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우리 철도불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속철의 성공적인 개통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가피력에 힘입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고영매 기자 yjgo@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국회정각회 직원불자신도회

'국회의 불심을 모으는 구심점, 초창기 공무원 불자 실행의 선구자, 국회 내 정각선원 개원...'

우리 입법공무원 불자들은 22년 동안 국회에 '불교비림'을 일으켜 왔습니다.

1982년 5월, 첫 출발을 했습니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 창립에 힘입어 20여 회원들이 모여 불자회를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의 굳은 신심과 하나 된 마음은 법회 때마다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참

에 나왔습니다. 회원수첩 제작, 법회와 경전공부의 정례회, 회비 납부 체계 마련, e메일을 통한 소식지 발행 등 광범한 만한 성과를 끌어내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 결과 창립 당시 정거적인 모임조차 갖지 못한 만큼 어려운 여건이었던 국회직원신도회는 모범적인 실행단체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 국회직원신도회는 그동안 산업은행, 증권거래소, 방송사 불자회 등 여의도 지역 직장불교단체

정각선원은 '정치' 초월한 화합의 도량

여의도 직장단체와 연계 '신심 배가'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원들이 2002년 8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회 내 정각선원에서 모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으로 부지런히 정진해왔습니다.

정기법회는 물론 성지순례, 큰스님 초청법회 등 활발한 실행활동을 벌여왔지요. 지질지 모르는 우리들의 신심은 지난 95년에 타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 내에 정각선원을 개원하게 했습니다. 정각선원의 개원은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 보좌관, 비서관, 용역회사 직원 등 국회 내 모든 사람들의 기도공간이자 쉼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150여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원의 불심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는 것은 물론, 국회내 문화도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불교신도회의 실행활동은 직장불교의 태동과 불교계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호법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 정비

와의 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또 이들에게 정각선원을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창립 멤버를 비롯한 퇴직 회원들과 현 회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 회원간의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창립 22년차를 맞은 우리 직원불교신도회는 올 4월에 새롭게 구성된 17대 국회정각회 구성에 중간교역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정각회 구성을 위해 한나라당 불자회, 새천년민주당 영등회, 열린우리당 등과 접촉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당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직원신도회가 교량을 역할을 맡을 생각입니다.

오는 4월 9일에는 각회사 태백선원장 교우 스님을 모시고 국회 정각선원에서 '국대민간 기원 무차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아리 석음을 짓고 마음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김광선 총무

Advertisement for 'Gyeonggang Gyoju' (금강염주) featuring a necklace of ginkgo nuts. Text includes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and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Advertisement for 'Yuk Beom Deung' (육법등) featuring a six-lamp candelabrum. Text includes '육법등 (六法燈)' and '특징' (Features) and '활용 범위' (Usage Range).